

성별·지역별 특성에 따른 노인의 삶의 만족도 연구¹⁾

박 기 남*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인구 내 여성노인 비율의 증가에 따라, 노인 연구에서 서로 다른 생애과정(life course)을 살아 온 남녀 노인의 삶의 조건의 차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연구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조사대상 노인은 서울과 충청지역 남녀 노인 1,767명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 지역별로 모형을 구분하여 중다회귀분석하였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를 보면, 충청과 서울지역 모두에서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남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명료함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 의료시설 접근도, 주관적 계층귀속감이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이며, 충청 여성노인의 경우 복지시설에의 접근도가, 서울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건강상태와 의료시설 접근도와 배우자 유무, 자식과의 전화연락 빈도 등 가족관계 변인들과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가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여성 노인이 남편과 자식에게 경제적 · 심리적으로 의존적이고 관계중심적인 존재라는 인식과 달리, 오히려 남성 노인이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에 따라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가장 기초적인 건강과 경제적인 조건에서 더 불안정한 현실을 반영하며, 노인복지정책의 내용과 수혜 단위의 선정에 있어서 남녀 노인의 조건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노인연구, 성별 관점, 노년기, 삶의 만족, 성별 차이, 지역별 차이

* 상지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교수

1)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BM1028).

I. 문제제기

2000년에 노인인구의 비중이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들어선 이후, 2018년이면 노인인구의 비중이 14.3%로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평균 40년에서 115년 정도 소요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18년이 소요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엄동욱 외, 2005). 이 같이 급속한 고령화의 속도는 2005년 현재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출산율(1.16)의 급격한 감소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인 관련 연구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정책지향적인 경향을 띠면서, 인구 고령화는 사회적 문제라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고령화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공급의 위축, 노인부양비의 증대와 고령자 장기요양 서비스의 비용증대로 인한 저축률과 자본축적률 저하, 사회복지 비용 증대로 인한 청년 세대에 대한 인적 자본 투자의 위축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승권, 2004; 방하남 외, 2004). 이와 같은 노인인구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은 세대간 갈등을 가져오고 연령차별주의를 낳을 수 있다. 게다가 노인의 많은 비율이 여성이기 때문에 성차별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노인 연구가 사회적 문제라는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령화를 사회학적 연구이슈라는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노인인구는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범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노인은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 성별(gender)과 지역, 계층, 연령 등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는 이질적인 집단이며, 이러한 특성들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안계춘, 1995, 김정석, 2003). 특히 노인층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들과 어떻게 다른 조건에 처해 있는지를 심도깊게 탐구한 연구들이 별로 없어서, 노인연구에서 성별

관점의 고려나 통합 등 이론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성별과 고령화는 사회적 삶에서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어서, 이들은 서로에 대한 준거 없이는 완전히 이해되기 어렵다. 그러나 성별과 고령화는 사회학적 사고에서 통합되어 연구된 것이 거의 드물다. 거시적 수준에서 성별과 고령화는 사회의 권력, 특권, 복지의 분배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미시적인 수준에서는 성별과 고령화가 정체성, 가치, 사회적 관계망, 정치나 기타 유대관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가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다. 물론 성별과 고령화의 연결은 계급과 지역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계층화의 다른 기반들과 상호 작용하는 보다 더 폭넓은 맥락 속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Ginn & Arber, 1995).

여성노인의 문제는 나라마다 구체적인 양상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건강상의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많은 실태조사에서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들에 비해 긴 평균수명, 열악한 취업여건, 건강상태의 악화, 유배우율의 감소, 낮은 교육수준 등으로 인해 노후에 더 심각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익기 외, 1999; 이가옥 외 2000; 정경희 외, 199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인 연구에서 성별 특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 사례로서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를 밝혀보고자 한다. 노년기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별 특성의 차이에 관한 관심은 아직 많지 않다.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조건에 놓여있는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성별 특성의 차이는 노년기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 축적되어온 결과로서 노인의 평균적 특성으로 융해되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차이이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 중 여성 인구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인들이 노인복지혜택에서 배제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평균적인 노인의 특성에 기초하여 노인복지정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남성노인의 삶의 조건으로

인해서 여성노인의 특성이 희석된다면, 노년기에도 계속해서 성별 불평등 현상이 재생산되고 심화될 위험이 있다. 노인 인구층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년기 삶의 만족도 역시 성별의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노인인구내의 다양성 중에서도 성별 차이에 중점을 두면서도, 서울과 춘천 지역 노인을 조사한 표본의 특성상 대도시와 도농복합의 중소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노인의 차이를 함께 고려하여,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중요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지역별로 노인의 삶의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둘째, 노인의 성별·지역별 삶의 조건에 따라 남녀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주요변수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기술해 본다. 셋째,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은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해, 성별·지역별로 분리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다.

II. 노인연구와 성별 관점 통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

여성들이 처한 상황과 노인들의 상황은 많은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이 자신의 세대와 젊은 세대를 위해 기여하는 다양한 무급노동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마치 20년 전에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마찬가지로 여성학이 발전하기 이전에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듯이, 현재 노인의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여성 노인은 여성과 노인이라는 이중의 굴레 속에 주변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 노인이 놓여 있는 상황의 특수성과 이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노인 연구에서도 여성학에서 섹스와 젠더를 구분하듯이 연령의 사회적 차원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연령이란 분명히 생물학적 토대를 갖는 사회적 범주이지만, 생물학은 연령의 사회적 의미나 중요성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Finch, 1986). 그런 의미에서 노인 연구에서 연령을 사회학적으로 이론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 차원 — 역연령(chronological age), 사회적 연령(social age), 육체적 연령(physical age) — 으로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다(Ginn & Arber, 1995). 연령의 세 차원을 구분하는 의미는 노년이란 성별화되어 있어서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작용하며 또한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역연령은 생물학적 나이이기는 하나 육체적 나이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군대의무연령, 선거권 연령, 연금수령연령 등 법에 규정된 나이를 의미한다. 노인 인구라 함은 주로 65세 이상을 지칭하지만, 이 연령에 근거할 경우 노인 집단의 다양성을 간과할 수 있다. 육체적 연령은 의학적 구성물로서 신체의 육체적 노화정도, 다시 말해서 기능의 손상수준을 반영한다. 그러나 육체적 변화의 속도와 시기는 사회구조내의 위치, 특히 성별과 계급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성인자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갈 확률이 2배나 더 높다. 이러한 점은 노인학대의 발생률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사회적 연령이란 특정 연령에게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결혼적령기의 차이, 재혼에 대한 성별 편견, 고용에서의 연령, 성별 차별 등은 사회에 존재하는 나이듦에 대한 이중기준이 존재함을 잘 보여준다. 특히 노동시장내 성별화된 연령주의(gendered ageism)가 고용이나 퇴직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여성들이 충분한 연금을 축적시킬 기회를 감소시킨다. 노년기에 여성노인도 여가나 기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아내나 엄마, 유급노동자로서가 아닌 다른 정체성을 개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들은 노년기에도 남성 노인에 비해 가정 일에 대한 의무가 더 많기 때문에 자유시간이 적은 게 현실이다. 또한 권력의 성불평등이 결혼관계에도 지속되어 홀아비가 과부보다 재혼할 가능성이 더 높다.

사회적 연령이란 생애과정으로서 축적되어온 성별 차이가 노년기에 반

영된 결과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년기의 성별 차이에 대해 주목하고 그 차이를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성별을 연령이나 학력과 같이 하나의 변수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남성 노인에 대한 여성 노인의 차이를 평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여성 노인의 경험을 정상적인 남성 노인으로부터 일탈한 모습으로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성별을 하나의 변수로 취급할 경우의 최대 약점은 남성노인과 여성 노인 각자의 고유한 생애과정의 특성들이 간과되어 여성 또는 남성 노인 고유의 문제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사회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개인이나 집단을 둘러싼 삶의 객관적 조건뿐만 아니라 안녕 복지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행복감, 안녕감, 만족감, 좌절감, 실망감-을 동등하게 강조하는 개념인 삶의 질 만족도에 있어서의 노인의 성별 차이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성별을 하나의 변수로 취급함으로써 노년기의 성별 차이를 일면적으로 보여주는 한계가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고, 교육수준, 신앙심은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연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이 무배우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annell and Dupuis, 1996). 그러나 노인의 성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들도 있다(Ling, 1982; 김태현, 1986; 김태현 외, 1999; 권중돈, 조주연, 2000). 한편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도 있다(박경숙, 2003).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하면, 노년기의 삶의 만족에 있어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다거나 낮다는 단편적인 결론이 함의하는 바는 매우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은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생애과정을 살아왔고 노년기의 삶의 만족에 대한 기대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노년기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성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노후생활에서의 성별 차이에 대한 본격적인 국내 연구로는 김정석

(200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별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성별을 하나의 변수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남녀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형과 남녀 노인별 모형을 동시에 분석하여 노인의 성별에 따라 경제적 자원의 크기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배우자 유무와 자녀동거여부가 남녀 노인의 경제적 자원과 맺는 관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의존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인들의 성에 따라 이들의 개인적 혹은 가족 및 가구적 특성이 노인들의 경제적 자원상황과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기제 혹은 주요변인들의 함의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노인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노년기의 성별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사례로서,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노년기의 성별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성별을 하나의 변수로 취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모형과 남녀 노인별 분석모형을 구분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성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노인연구에서 성별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의 특성상 지역적 특성도 노인의 삶의 조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조사대상 노인이 서울과 춘천이라는 이질적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지역별로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틀 역시 엄밀한 이론적 전제에 기초하여 설계된 모형이 아니어서 인과관계를 규명한다기보다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지역별, 성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관련성 분석에 불과하다는 제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

구 분	항 목	측 정
종속변수	주관적 삶의 만족도	PGCMS 17문항의 총점
독립변수	성	여성(기준), 남성
	연령	연속변수(만나이)
	교육년수	연속변수
	건강상태	5점 척도
	의료시설 접근도	5점 척도
	복지시설 접근도	5점 척도
	계층귀속감	5점 척도
	취업여부	비취업(기준), 취업
	용돈수준	연속변수
	배우자 동거유무	비동거(기준), 동거
	자녀와의 전화접촉빈도	6점 척도
	자녀와의 대면접촉빈도	6점 척도
	친구, 이웃과의 전화접촉빈도	6점 척도
	친구, 이웃과의 대면접촉빈도	6점 척도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크게 보면 인구학적, 주거환경적, 경제적인 요인들, 그리고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는 변수들로 구분해볼 수 있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표 1>과 같다. 종속변수인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PGCMS(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²⁾의

2) PGCMS의 17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올해는 사소한 일들로 괴로움이 더 많았다. 2) 나는 때때로 너무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곤 한다. 3) 나는 슬퍼할 일들이 많다. 4) 나는 많은 것들을 두려워한다. 5) 나는 이전보다 화를 더 많이 낸다. 6) 대개 나는 사는 것이 힘들다. 7) 나는 일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8) 나는 쉽게 마음이 상한다. 9) 내가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점점 악화된다. 10) 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운이 넘친다. 11)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12) 나이가 들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아진다. 13) 나는 때때로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느낀다. 14) 나는 더 젊었을 때만큼 행복하다. 15) 나는 내 친구와 친척들을 충분히 만난다. 16)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 17) 현재의 내 인생에 대해 만족

합산 점수를 사용하였다. PGCMS는 노인들의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크게 세 영역 - 불안함, 노화에 대한 태도, 외로움 -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두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문항의 점수를 역부호화하여 합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도록 조정하였다. 본 조사에서 17개 문항에 대한 내적 신뢰도(Chronbach-alpha) 값은 0.72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03년 한림대학교 부설 고령사회연구소에서 실시한 ‘고령화 사회와 한국노인의 삶의 질 연구’ 조사에서 추출되었다. 원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구(區)별 층화표집(stratified sampling)과 구내의 동, 통에 대한 집락표집(cluster sampling), 그리고 조사구 내에서의 계통표집(systematic sampling)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원 조사는 서울 및 춘천의 지역 45세 이상 2,529명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상 65세 이상 노인들 1,76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분석은 사회과학통계패키지(SPSS 10.0)를 사용하였다. 노인들의 실태 및 삶의 만족도 수준을 가늠해보기 위해 주요 독립변수별 삶의 만족도 평균의 차이를 성별 · 지역별로 나누어 비교 · 기술한 후, 주요 독립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성별 · 지역별로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분석

1. 노인의 특성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술적 분석

1) 조사대상 노인의 특성

<표 2>에서 조사 대상 노인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역간의 차이보다는 남녀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인다. 성별로는 서울지역에서 여성 비율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남녀 비율이 4대 6 정도로서, 전국 노령인구의 평균 성비와 유사했다. 연령별로 남녀 노인의 구성비율을 보면, 서울과 춘천 지역 모두 80세 이상 여성노인의 비율이 더 높은데, 이는 여성의 평균기대수명이 남성보다 7년 이상 긴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별 특성을 보면 지역과 성에 따른 차이가 매우 뚜렷하다. 남녀 노인 모두 춘천보다 서울에서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운데, 남성노인들은 중졸 이상의 학력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여성 노인들은 무학과 초졸 이하의 비율이 춘천 93.1%, 서울 81.8%로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별 학력 격차는 현재의 노인 세대가 살았던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차별이 심했던 시대적 배경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혼 상태 역시 남성 노인은 배우자와 동거중인 비율이 서울과 춘천에서 모두 80%이상으로 대다수인 반면, 여성노인은 사별상태에 놓여 있다는 응답이 70%내외를 차지하고 있어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 재혼에 대한 성별 편견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표 2> 지역별 남녀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특 성	서울 지역		춘천 지역	
	여성노인	남성노인	여성노인	남성노인
성별	66.0(467)	34.0(241)	58.4(618)	41.6(441)
연령 평균	72.9세	71.7세	72.7세	71.8세
65-69세	33.2	41.5	38.0	42.6
70-79세	53.1	47.7	48.1	46.7
80세 이상	13.7	10.8	13.9	10.7
계	100.0(467)	100.0(241)	100.0(618)	100.0(441)
학력 평균	3.7년	9.6년	2.2년	7.3년
무학	44.8	7.1	58.1	20.2
초졸 이하	37.0	30.7	35.0	38.8
중졸 이하	8.1	14.1	3.6	12.0
고졸 이하	8.1	28.6	2.9	15.6
대학중퇴 이상	1.9	19.5	0.5	13.4
계	100.0(467)	100.0(241)	100.0(618)	100.0(441)
결혼 상태				
배우자와 동거중	22.5	83.8	27.9	86.4
배우자와 별거중	1.1	1.2	1.1	0.9
배우자와 이혼	2.4	0.8	1.0	0.5
배우자와 사별	72.7	13.3	69.7	12.2
미혼	1.3	0.8	0.3	
계	100.0(466)	100.0(241)	100.0(617)	100.0(441)

<표 3>에서 고용상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은퇴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남성노인은 유급으로 취업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서울지역의 경우 가정살림의 비율이 높고 춘천지역의 경우 무급으로 취업한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춘천지역의 경우 도농 복합도시여서 여성노인의 경우 농업이나 자영업에 무급가족종사자로 취업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과 용돈수준을 통해서 노

인들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남녀간의 차이보다는 지역간의 차이가 커서, 서울지역 노인의 가구소득이 춘천지역의 가구소득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노인이 포함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아니라, 노인이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용돈수준만을 놓고 보면, 지역간 차이보다 남녀간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용돈 10만원 미만에서는 여성 비율이 월등히 높고, 20만 원 이상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현재의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노인들은 성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절반 이상의 비율이 어려운 상태라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집단은 서울 지역의 여성노인들로서, 매우 어렵다는 응답만 41.6%로 다른 집단의 노인에 비해서 응답률이 높았다.

<표 3> 지역별 남녀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 %(명)

	서울 지역		춘천 지역	
	여성노인	남성노인	여성노인	남성노인
고용상태				
유급으로 취업	12.6	26.6	11.2	39.9
무급으로 취업	0.2	0.8	9.7	3.2
은퇴	48.8	70.5	63.6	54.9
실업	1.9	2.1	0.5	1.6
가정살림(기타 포함)	36.4		14.9	0.4
계	100.0(467)	100.0(241)	100.0(616)	100.0(441)
월평균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22.1	25.9	34.4	22.1
50-100만원 미만	21.4	22.2	23.8	29.6
100-200만원 미만	24.1	25.0	25.8	30.9
200-300만원 미만	20.1	18.5	9.5	11.6
300만원 이상	12.3	8.3	6.4	5.8
계	100.0(407)	100.0(216)	100.0(546)	100.0(398)
월평균 용돈				
5만원 미만	22.3	10.0	27.0	12.5
5-10만원 미만	21.6	14.1	24.4	16.1

	서울 지역		춘천 지역	
	여성노인	남성노인	여성노인	남성노인
11-20만원 미만	31.5	30.3	32.4	37.4
20만원 이상	24.6	45.6	16.2	34.0
계	100.0(467)	100.0(241)	100.0(618)	100.0(441)
경제상태				
매우 어려움	41.6	22.0	31.1	23.6
조금 어려운 편	26.6	33.2	30.9	31.3
보통	28.5	38.2	34.3	40.1
여유있는 편	2.8	4.6	3.7	4.5
매우 여유 있음	0.4	2.1		0.5
계	100.0(466)	100.0(241)	100.0(618)	100.0(441)

2) 주요 변인들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

노인들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 열악한데, 실제로 노인들은 자신의 삶의 조건에 대해 주관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주요 변수별로 지역별, 성별 삶의 만족도 평균값을 비교해 보았다. 삶의 만족도 평균은 PGCMS 17항목의 점수를 합한 후 17로 나눈 값으로 1에서 5 사이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평균이 높게 나타나도록 조정하였다.

먼저 <표 4>에서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관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평가할수록 삶의 만족도 평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연령보다는 교육수준과 건강상태에 따라서 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생물학적 연령이 현실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음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삶의 만족은 생물학적 나이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 있는지, 그리하여 건강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가 하는 육체적, 의학적인 연령이 보다 현실적인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세부적으로

로 각 변수들 안에서 남녀노인의 차이를 들여다보면, 같은 조건일 경우 여성노인의 만족도가 일관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같은 변수 안에서 조건이 나뉠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여성노인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남성들은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 삶의 질 만족도가 크게 좌우되고 있었다.

<표 4> 인구학적 변수별 삶의 만족도 차이

단위 : 평균(명)

변 수		서울 지역			춘천 지역		
		여성노인	남성노인	통계값	여성노인	남성노인	통계값
성별		2.87(466)	3.04(241)		2.76(613)	3.05(441)	
연령	65-69	2.92(155)	3.11(100)		2.81(235)	3.12(188)	
	70-79	2.87(247)	3.00(115)		2.73(294)	3.04(206)	
	80이상	2.77(64)	2.95(26)		2.72(84)	2.86(47)	
교육 수준	무학	2.72(209)	2.91(17)		2.67(354)	2.73(89)	
	초등학교	2.95(173)	2.98(74)		2.84(216)	3.03(171)	
	중학교						
	고등학교	3.09(84)	3.09(150)		3.11(43)	3.23(181)	
건강 상태	나쁨	2.57(285)	2.65(120)		2.61(421)	2.74(223)	
	보통	3.19(77)	3.27(48)		2.90(79)	3.24(79)	
	좋음	3.45(104)	3.54(73)		3.21(113)	3.44(139)	

지역별 특성을 보면, 춘천의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 평균이 가장 낮으며, 춘천의 남녀 노인간 삶의 만족도 격차가 서울지역 남녀노인보다 더 크다. 교육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서 지역적 특성이 발견되는데, 서울 지역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른 남녀 노인의 만족도 차이가 거의 없고 동일한 수준이나, 춘천 지역의 경우 남녀간에 일정한 격차를 유지하면서 학력에 따른 삶의 만족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 거주환경별 삶의 만족도 차이

단위 : 평균(명)

변수	범주	서울 지역		춘천 지역	
		여성노인	남성노인	여성노인	남성노인
의료시설 접근도	나쁨	2.59(54)	2.73(21)	2.62(325)	2.87(188)
	보통	2.67(45)	2.83(21)	2.87(62)	3.12(57)
	좋음	2.94(367)	3.10(199)	2.93(225)	3.21(196)
복지시설 접근도	나쁨	2.78(106)	2.90(43)	2.63(213)	2.94(152)
	보통	2.90(192)	3.18(84)	2.70(147)	3.02(96)
	좋음	2.89(168)	3.00(114)	2.91(252)	3.16(191)

거주환경은 노인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삶의 터전이다. 거주환경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교육, 문화, 보건, 의료, 교통 등과 같은 서비스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노년기 삶의 만족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과 관련된 의료시설 접근도와 여가와 문화활동과 관련된 복지시설 접근도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거환경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를 <표 5>에서 보면, 예상과는 달리 춘천지역의 의료, 복지시설 접근도에 따른 만족도가 서울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춘천 지역 남자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서울지역의 경우 복지시설의 접근도가 ‘보통’일 경우에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가 ‘ 좋음’일 경우에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남자노인의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표 6> 경제조건별 삶의 만족도 차이

단위 : 평균(명)

변 수	범 주	서울 지역		춘천 지역	
		여성노인	남성노인	여성노인	남성노인
계층귀속감	하층	2.82(370)	3.02(183)	2.66(463)	2.93(313)
	중간층	3.09(79)	3.26(44)	3.08(134)	3.31(106)
	상층	3.11(10)	2.75(12)	2.82(12)	3.42(20)
용돈수준	10만원 미만	2.73(205)	2.94(58)	2.65(314)	2.85(126)
	10-20만원 미만	2.89(147)	2.98(73)	2.85(199)	3.06(165)
	20만원 이상	3.09(114)	3.14(110)	2.91(100)	3.22(150)
취업 여부	취업	2.89(60)	3.18(66)	2.73(128)	3.10(191)
	비취업	2.87(406)	2.99(175)	2.77(483)	3.02(250)

<표 6>에서 경제적 조건에 따른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먼저, 주관적인 계층귀속감에 따른 차이를 보면, 자신을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와 중간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만족도에 있어서 급격한 차이가 났다. 반면 상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신을 상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서울지역 남성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2.75로 가장 낮았으며, 춘천지역 여성노인도 중간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인 3.08보다 더 낮은 2.82로 나타났다. 이 경우 노인이 속한 가족의 경제적 계층과 본인이 처분가능한 용돈수준과의 격차가 심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용돈수준은 계층 귀속감과 달리 용돈액수가 많을수록 노인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고령화 사회에 대한 복지대책으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노인들은 취업 여부에 따라서 생활만족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서울지역의 경우 취업해 있는 노인들이 남녀 모두 삶의 만족도가 약간 더 높았으며, 춘천지역에서는 여성노인의 경우 생계형 취업의 비율이 높아서인지 취업해 있을 때 만족도가 더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을 위한 취업대책을 마

련함에 있어서도 지역간, 남녀간 노인의 상이한 조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7>에서 가족관계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적 보호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못한 조건에서 가족은 노인들에게 중요한 복지제도의 역할을 한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의 삶의 질이 높다는 서구의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배우자 유무가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배우자 유무에 따른 남녀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노인의 부부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여성들은 노년기에 가사와 자녀양육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나 일생을 통해 부인에게 일상의 의식주를 의존해온 남성 노인들을 여전히 수발하여야 하는 여성노인의 입장에서는 동반자로서보다는 부담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내에서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남성노인들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여 의식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춘천지역의 경우 남녀 노인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농사일이나 기타 자영업 등에 있어서 여전히 남녀가 합심하여 가게를 이끌어가야 하는 현실적 필요와 더불어, 춘천지역의 여성들이 보다 전통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7> 가족관계별 삶의 만족도 차이

단위 : 평균(명)

변 수	범 주	서울 지역		춘천 지역	
		여성노인	남성노인	여성노인	남성노인
배우자 유무	있음	2.82(202)	3.05(202)	2.87(171)	3.09(381)
	없음	2.88(361)	3.03(39)	2.72(441)	2.80(60)
동거하지 않는 자녀와의 전화 연락빈도	주 1회 미만	2.70(152)	2.82(66)	2.64(213)	2.90(132)
	주 1회 이상	2.95(176)	3.19(102)	2.80(284)	3.08(226)
	하루 1회 이상	3.02(85)	3.08(52)	2.95(80)	3.30(67)
동거하지 않는 자녀와의 대면 접촉빈도	주 1회 미만	2.75(237)	2.84(106)	2.64(288)	3.00(201)
	주 1회 이상	3.04(102)	3.30(58)	2.89(146)	3.09(123)
	하루 1회 이상	3.03(75)	3.22(56)	2.88(143)	3.14(101)

춘천지역의 경우 남녀 노인 모두 자식들과 자주 전화연락을 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서울 지역의 경우 남성노인은 동거하지 않는 자녀와 주 1회 이상 전화연락을 할 경우에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하루 1회 이상 자주 할 경우에는 만족도가 오히려 낮아졌다. 마찬가지로 자식과의 대면 접촉의 경우에도 주 1회 정도일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서울 여성노인의 경우도 주 1회 이상과 그 보다 더 잦은 하루 1회 이상 간에 만족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서울 지역 노인들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자식과 적당한 정도의 관계, 즉 주 1회 정도의 전화연락과 직접 만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부모 자식관계로 생각하며 그 경우에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도시의 노인 세대들은 산업화와 핵가족화 등 현실의 변화를 수용하여 실생활에 있어서는 자식과의 적당한 거리 유지를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춘천지역의 경우에도 자식과의 대면접촉빈도에 따른 남녀노인의 만족도에 차이가 났는데, 남성노인들의 경우 자주 만날수록 만족도가 일관되게 높아지고 있으나, 여성노인의 경우 하루 1회 이상 만날 경우 만족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자식들이 직접 찾아올 경우에 남성노인의 경우 아무런 부담이 없지만, 여성노인의 경우 손자녀 양육이나 자식과의 잦은 만남이 수반하는 가사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8> 사회적 관계별 삶의 만족도 차이

단위 : 평균(명)

변 수	범 주	서울 지역		춘천 지역	
		여성노인	남성노인	여성노인	남성노인
친척/친구/ 이웃과의 전화 연락빈도	주 1회 미만	2.77(266)	2.90(147)	2.69(358)	2.94(226)
	주 1회 이상	2.94(146)	3.45(55)	2.84(195)	3.14(169)
	하루 1회 이상	2.20(53)	3.04(241)	2.91(60)	3.28(46)
친척/친구/ 이웃과의 대면 접촉빈도	주 1회 미만	2.75(231)	2.91(118)	2.64(145)	2.89(101)
	주 1회 이상	3.04(84)	3.24(40)	2.58(64)	3.09(65)
	하루 1회 이상	2.96(149)	3.14(83)	2.83(404)	3.10(275)

노년기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 직업생활에서의 은퇴,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의 죽음, 자녀의 독립 등으로 여러 가지 긴장에 노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친구나 이웃 등 가족 이외의 사회적 관계, 여가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고 결과적으로 정서적인 만족을 추구한다. <표 8>을 보면, 춘천지역의 경우에는 산업화, 도시로의 이주 등으로 가족관계는 많이 해체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비해 지역공동체내의 인간관계가 아직 밀접하기 때문인지, 남녀 노인 모두에게서 친척, 친구, 이웃과 전화연락을 자주하고 직접 만나는 횟수가 잦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일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지역의 경우 자식과의 전화연락이나 대면접촉 정도와 마찬가지로 친척,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주 1회 정도 일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지역의 경우 노인 세대에게도 개인주의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지역별 결정요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상적으로 볼 때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주요 변수들에 따라 성별·지역별 차이를 보이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성별·지역별로 구분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참조).

서울지역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성별로 분리하여 분석해본 결과,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의료시설에의 접근도가 남녀 노인의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차이를 보인 것은 여성 노인의 경우 교육년수와 주관적 계층귀속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으며, 남성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대면 접촉정도와 친구나 이웃과 전화연락 빈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복지시설에의 접근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지역 남녀노인의 평균적인 특성인 전체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 의료시설 접근도, 복지시설 접근도, 주관적 계층귀속감, 용돈수준, 자녀와의 전화연락 빈도, 친구나 이웃과의 전화연락 빈도 등으로 남녀 노인의 평균적 특성을 반영하여 훨씬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노인에게 영향을 미쳤던 교육년수와 남성노인에게 영향을 미쳤던 자녀와의 대면 접촉정도는 효과가 사라지고, 남녀 노인을 분리한 모형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던 용돈수준과 자녀와의 전화연락 빈도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모형에서 성별 변수는 서울지역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만일 성별 분리 모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서울 지역 남녀 노인은 삶의 만족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표 9> 춘천과 서울지역 남녀 노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구 분	서울 지역			춘천 지역		
	여성노인 β	남성노인 β	전체 β	여성노인 β	남성노인 β	전체 β
성(여성기준)					.081**	.045
연령	-.049	-.026	-.049	.043	-.061	-.007
교육년수	.114**	-.060	.034	.052	.007	.027
건강상태	.494***	.543 ***	.504***	.326***	.381***	.350***
의료시설 접근도	.112**	.194 **	.130***	.090**	.082*	.088**
복지시설 접근도	-.022	-.116 **	-.056*	.158***	.089**	.121***
주관적 계층귀속감	.116**	.016	.102**	.209***	.134**	.181***
취업여부(비취업 기준)	-.003	.028	-.006	-.057	-.035	-.044
용돈수준	.054	.074	.052*	-.021	.070	.000
배우자 동거(비동거 기준)	-.059	-.013	-.052	.036	.085**	.059*
자녀 전화연락 빈도	.071	.015	.076*	.065	.078	.071**
자녀 대면접촉 빈도	.010	.142**	.057	.060	-.008	.027
친구, 이웃 전화연락 빈도	.033	.137**	.079**	.009	-.003	.008
친구, 이웃 대면접촉 빈도	.032	.008	.015	.059	.081*	.067**
F	18.524	12.887	27.860	17.856	14.514	33.246
R ²	.351	.427	.363	.281	.307	.311
N	467	241	708	618	441	1059

* p<.1 ** p< .05 *** p< .001

춘천지역 노인 전체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성, 건강상태, 주관적 계층 귀속감, 복지시설과 의료시설 접근도, 배우자 동거유무, 자녀와의 전화연락 빈도, 친구, 이웃과의 대면 접촉 빈도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보면 춘천지역 노인들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으로 상층에 속할수록, 복지시설과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도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자녀와 잦은 전화연락을 주고받고 친구나 이웃과 자주 만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남녀 노인별로 구분하여 보면, 춘천지역 여성노인의 경우 건강상태와 의료시설과 복지시설 접근도, 그리고 주관적인 계층귀속감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결한 구조를 보였으며, 배우자 유무와 친구나 이웃과의 대면접촉 빈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 유무와 친구나 이웃과의 대면 접촉 빈도는 남성노인의 삶의 만족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서울 지역 노인 전체와 춘천 지역 노인 전체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성별 특성보다는 전체적으로 지역적인 경향성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지역 노인과 춘천지역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서로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은 성 변수와 용돈수준, 배우자 동거유무, 친구 및 이웃과의 전화연락빈도와 대면접촉빈도였다. 서울지역의 경우 노인의 성별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춘천지역 노인들의 경우 남성노인들이 삶의 만족도가 여성노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성별 변수가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용돈수준은 춘천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지역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서울 노인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긴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가 춘천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서울노인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지역적 특성을 보이는데, 가족을 대신하여 이웃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춘천의 경우 친구나 이웃과의 직접적인 대면접촉 빈도가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반면, 서울지역 노인의 경우 대도시의 환경적 특성상 친구나 이웃과의 직접적인 대면접촉보다는 전화연락 빈도가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를 보면 춘천지역과 서울지역 모두에서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남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명료함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 의료시설 접근도, 주관적

계층귀속감이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들이며, 춘천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복지시설에의 접근도가, 서울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들이 남편이나 자식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의존적인 · 관계중심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과 달리,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배우자 유무나 자식과의 전화연락빈도나 접촉빈도, 그리고 이웃 등과의 사회적 관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여성노인들은 건강과 경제적인 조건만 허락된다면 남편이나 자식 등의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삶의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여성노인들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안정 수준이 일반적으로 남성 노인보다 낮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여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건강상태와 의료시설 접근도와 같은 건강관련 변수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이었으며, 그 외의 가족관계 변인들과 사회적 관계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서울의 남성노인들에게는 건강 관련 변수 이외에 자식과의 대면접촉빈도와 친구나 이웃과의 전화연락빈도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복지시설에의 접근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춘천지역 남성노인의 경우 건강변수 이외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복지시설에의 접근도가 좋을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함께 살면서 이웃들과 자주 만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남성노인들은 여성노인들에 비해 경제적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우자 유무와 자식과의 연락빈도, 그리고 친구나 이웃과 사회적 관계 등 관계적 요인이 남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 요약 및 함의

본 연구는 노인인구의 증가, 특히 노인인구 비율중 여성노인의 증가현상에 주목하여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성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춘천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과와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노인 전체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선행연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관련 요인들과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자식과의 유대감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연령의 효과는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영향은 아니어서, 생물학적인 연령 그 자체보다는 자신이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정도인 육체적 연령이 삶의 만족도와 보다 더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노년이란 사회적 연령 개념이 지칭하고 있는 것처럼 성별화되어 있어서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작용하며 또한 사회적으로 다르게 구성된다는 의미에서, 노년기 삶의 만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성별 차이가 심도 깊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를 보면 춘천지역과 서울지역 모두에서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남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명료함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 의료시설 접근도, 주관적 계층귀속감이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들이며, 춘천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복지시설에의 접근도가, 서울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건강상태와 의료시설 접근도와 같은 건강관련 변수와 더불어 배우자 유무, 자식과의 전화연락 빈도 등 가족관계 변인들과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가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여성노인들이 남편이나 자식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의존적이고 관계중심적인 존재라는 인식과 달리, 오히려 남성 노인들이 부인과 자식, 이웃과의 관계에 따라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는 노인이 살아온 생애과정별 조건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의 성별 차이가 노후 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기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남성들은 대체로 일생에 걸쳐서 배우자의 지원을 받으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갖고 가정 안에서 경제권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위에 있다가 정년을 계기로 급속히 삶의 조건이 단절되고 나빠지기 때문에, 남성노인의 경우 사회로부터 가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확인하고 싶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여성 노인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며 자식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끊임없이 일해 왔지만, 실제로 가정 안에서 재산소유권이나 경제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조건이 더 악화되었다기보다 어려운 경제조건에 익숙해 있고 자식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수발을 받기보다는 보살핌을 제공해왔기 때문에 기대수준이 이미 낮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여성노인들은 건강과 경제적인 조건만 허락된다면 남편이나 자식 등의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삶의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책의 기본단위를 가족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지역별, 성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결과들을 통해서 보면, 노년기 삶의 만족도 연구에 있어서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만족간의 괴리에 대해서 보다 심화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역과 성별에 따라서 노년기 삶의 객관적인 조건이 서로 다르지만, 삶의 질에 대한 기대나 의식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춘천지역 남성 노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남편을 잘 만드는 전통적인 부부관계 관념을 여

성노인들이 아직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복지 시설 접근도에 따른 만족도도 춘천지역 노인들에게 높게 나타났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춘천지역이 서울보다 의료·복지시설의 수준이나 다양성, 대중교통 등이 편리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울지역 노인들간에 삶의 만족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이 같은 조건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 남성 노인이 배우자가 있어도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이미 도시의 노인세대 부부관계가 현대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인 내부의 다양한 차이, 그 중에서도 생애과정에 따라 서로 다른 조건에 놓여있는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삶의 특성을 반영한 성 인지적인(gender sensitive) 노년학 연구와 더불어 도시와 농촌 등 지역별, 계층별 차이에 기반한 연구와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 연구에 있어서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이 연구의 객체로서 또는 단순히 사회적 구조의 희생자로서 기술되는 양적인 방법의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주체로서 노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노인의 다양한 존재들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질적인 연구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혜(1998).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소고**. 정진영교수 정년퇴임기념 논총 : 한국사회사업의 쟁점과 과제. 서울 : 서울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승권(2004). **저출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정책적 대응방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김은경(2002). **농촌 여성노인의 문제 및 복지정책을 위한 제언 :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여름호, pp.175-191.

- 김정석(2003). 노후생활에서의 성별 차이. 한국인구학, 26(1), pp.59-77.
- 김태현 외 4인(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pp.150-169.
- _____(1999).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1), pp.61-81.
- 박경숙(2003). 노년기의 삶.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서울 : 의암출판.
- 박명선(2002). 전북 여성노인의 일, 빈곤 그리고 사회복지적 대안 논의. 한국사회학, 36(2), pp.175-204.
- 박영란(2002). 여성노인문제의 현황과 복지정책. 양옥경 외, 여성과 사회 복지(302-335).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방하남 · 신동균 · 김동현 · 신현규(2004).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 성향숙(2001). 여성노인복지의 실태와 복지정책의 과제. 여성학연구, 11(1), pp.45-62.
- 안계춘(1995). 한국 인구의 노령화와 특성. 한국사회학, 29, pp.717-732.
- 엄동욱 외(2005). 고령화, 저성장 세대의 기업 인적 자원 관리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은기수(2001). 한국 노인들의 경제생활. 김두섭,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271-332).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 이철우(1996).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노인복지정책. 한국사회학, 30, pp.779-805.
- 정경희 외(1998). 198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선화(1999).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노인의 빈곤 원인. 한국가족복지학, 3, pp.187-211.
- Bury, Mike(1995). *Ageing, Gender and Sociological Theory*. ed. by Sara and Jay. *Connectin Gender and Ageing*. Buckingham : Open University Press.

- Finch, J.(1986). Age. ed. by R. Burgess. Key Variables in Social Investigation.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 Gibson, Diane(1996). Broken Down by Age and Gender 'The Problem of Old Women' Redefined. *Gender and Society*. 10(4), pp. 433-448.
- Ginn, Jay and Arber, Sara(1995). *Only Connect : Gender Relations and Ageing*. ed. by Sara and Jay. Connecting Gender and Ageing. Buckingham : Open University Press.
- Mcmullin, Julie(1995). *Theorising Age and Gender Relations*. ed. by Sara and Jay. Connecting Gender and Ageing. Buckingham : Open University Press.

A Study of the Necessity for Integrating Gender Approach with the Elderly

Park, Ki-Nam (Lecturer, The Hallym Univ.)

This research tries to understand the gender differences among the elderly. Elderly people have experienced different life courses according to their gender. Life experiences and conditions between the two genders have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Sampling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a total of 1,767 elderly people living in Seoul (a large city) and Chuncheon (a medium sized city). Based on our research dat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wo areas was tried with variables that affect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our results, meaningful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females were relatively simple when compared with elderly males. Health condition, proximity to health related institutions, and subjective class affiliation were found to be positively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female elderly. In the case of Chuncheon elderly females, proximity to welfare institutions was important, however among Seoul elderly females, educational level was important. In contrast health condition, proximity to health related institutions, existence of their spouses, frequency of telephone calls with their children, and relations with their friends and neighbors were important among the male elderly. This finding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mmon thought that elderly females are economically and psychologically dependent on their spouses and children. On the contrary, elderly males were found to be more dependent on their families and neighbors. This suggests that elderly females are situated in a more difficult situation in order to secure their basic health and economic conditions. We may need gender sensitive

policy measures in order to implement an effective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key words : elderly, gender approach, life satisfaction, gender difference, regional difference